

오늘의 유머

■공처기의 대담

한 공처가가 경찰이 되기 위해 면접을 보러 갔다. 그는 면접관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다. "자네 만약에 말이야, 아내를 체포해야 할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한참 생각하던 남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지원을 요청하겠습니다."

■의사와 환자 사이

'의사와 환자들과의 관계'를 주제로 한 의사협회 세미나가 열렸다. 그런데 세미나 시작 시간이 지나도록 강사가 나타나지 않아 회의에 참석하는 의사들이 슬렁였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한 성미 급한 의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외쳤다. "이게 참을 수가 없군." 화가 난 의사는 밖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회의실 문이 잠겨 있어서 마치 못해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그러자 일제히 여기저기에서 의사들의

불평소리가 쏟아졌다. "도대체 이게 뭐야! 강사 녀석을 기다리느라 내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낭비하고 있잖아!" 바로 그 순간 조용히 앉아있던 한 사람이 일어나 주위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를 맡은 강사입니다. 자 이제 의사와 환자들의 관계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부인의 대담

한 부인이 법원에 들어서다 급속 탐지기 검사에 걸렸다. 검사를 맡은 보안 직원이 말했다. "부인 실례지만 혹시 칼이나 무기를 지니고 계십니까?" 그러자 놀란 부인이 되물었다. "아니 왜요? 그런 것이 필요한가요?"

■할아버지의 탄식

시골 할아버지가 도시에 구경을 와서 처음 엘리베이터라는 것을 보게 됐다. 생긴 것부터 신기해 할아버지가 엘리베이터 앞을 서성거리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 한 명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리고 얼마 후 미모의 젊은 여성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것이었다. 그걸 본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오메, 내 이런 게 있는 줄 알았으면 할망구를 데리고 오는 건데."

■운전기사와 코끼리

한 남자가 태국 여행을 가 버스를 탔다. 그런데 버스기사가 무릎 위에 신문을 얹고 운전하고 있었다. 기사는 가끔 신문을 찢어낸 뒤 다시 잘게 쪼개 창문 밖으로 내던졌다. 이 모습을 본 남자가 물었다. "실례하지만 왜 종이조각을 창문 밖으로 던지는 거죠?" "코끼리를 쫓아내고 있어요." "코끼리를 쫓는다구요? 시애틀 코끼리 따윈 없어요." 그러자 기사가 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맞아요! 이게 효과가 있다는 뜻이죠."

■적반하장

한 여자가 핸드백 가게에 들어와 말했다. "며칠 전에 이 지갑을 샀는데 색이 마음에 들

지 않아서 환불하려고 왔습니다." "순번 죄송하지만 일단 판 물건은 돈으로 다시 바꿔 드리지 않는 게 저의 상점의 방침입니다."

"왜 환불이 안된다는 거죠? 저 이 지갑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상점 방침이 그래서 어쩔 수가 없네요." 여자가 지갑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큰 소리로 우기며 계속 환불을 요구하자 점원이 마지못해 돈을 내주었다. 그런데 몇 분 뒤 그 여자가 들어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 말했다. "저 실례합니다. 아까 그 지갑에 열쇠를 넣어 두었는데요."

■환자의 대담

정신병원에서 환자가 의사에게 말했다. "제가 꼭 똑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부터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나요?" 그러자 환자가 대답했다. "송아지 때부터요."

리빙 센스

목살배기

1. 허리를 곧게 펴고 목을 360도 회전한다. 목 뒤의 경추가 손상되지 않도록 부드럽게 동작을 실시한다. 오른쪽으로 머리를 천천히 기울이고, 왼쪽으로 기울이기 전에 잠시 동안 머물다 앞으로 목을 천천히 숙인다. 반대로 왼쪽 옆으로 머리를 천천히 돌린다. 이런 과정을 10회 반복.

2. 손을 허리에 얹고 다리를 약간 벌리고 선다. 턱과 쇄골 사이에 테니스공을 끼우고 6초간 가만히 있다. 그런 다음 공을 빼고 목을 천천히 크게 돌린다. 왼쪽, 오른쪽 각각 3회 반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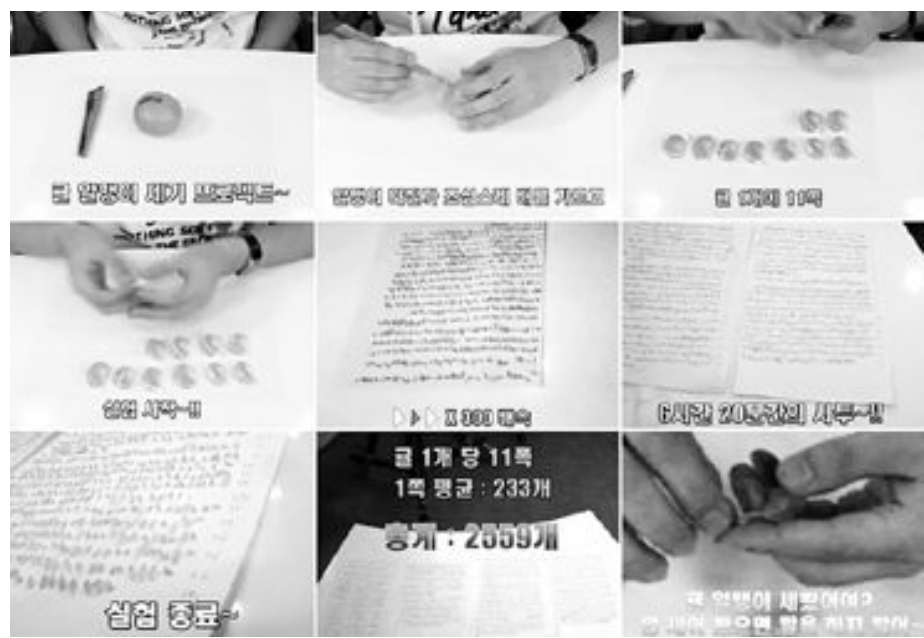


숨을 내쉬면서 목을 왼쪽, 오른쪽 각각 기울인다. 목이 당겨지는 것을 느껴면서 4회 반복한다.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11월 13일(음 10월 16일 丁巳)

Table with 12 rows representing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and their corresponding fortune predictions for the 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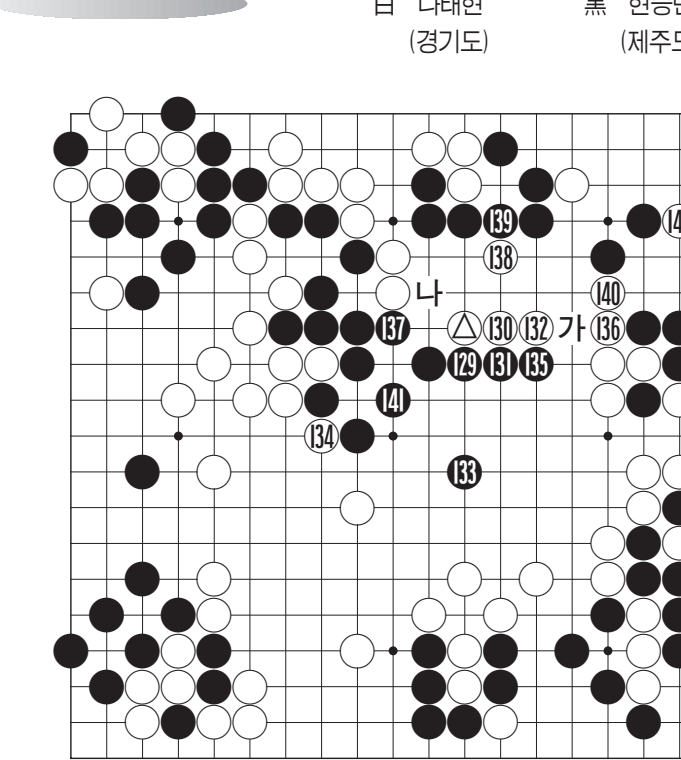
시끌벅적 e-스타



스펀지도 몰랐다! '굴 알맹이 세기' 동영상 화제

"도대체 굴 알맹이는 몇 개나 될까?" 세상 모든 것이 호기심인 사람들에게 솔직한 질문이다. 세상은 넓고 궁금한 것은 많다. 세상은 넓고 집요한 사람도 역시 많다. 굴 알맹이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동영상 화제가 되고 있다. 포털사이트 다음에 올라온 '스펀지도 몰랐다! 굴 알맹이 세기!'라는 동영상은 10만 네티즌의 호기심을 말끔히 씻겨주었다. 입안에서 톡톡 상큼하게 터지는 굴 알맹이, 과연 몇 개나 될까? 자 굴 알맹이 세기 프로젝트를 통해 확인해보자. 이 프로젝트에 필요한 것은 칼, 굴, 알맹이를 놓을 백지,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준비물은 '끈질기다'를 넘어선 집요한 인내력. 알맹이가 터지지 않도록 조심 조심 굴 껍질을 벗긴 다음 분해를 시작한다. /김어울기자 wool@kwangju.co.kr

제89회 전국체전 바둑 대회 흑 대마의 사활문제



현승민군의 과욕으로 백 △로 흑 대마를 공격하게 되어서는 이 대마의 생사가 승부가 패배된 장면이다. 그러나 현승민군은 아직도 여유만만이다. '살마 이 대마가 죽으랴'는 안일한 생각으로 흑 129, 131로 죽죽 밀고 133으로 자리를 잡아 '잡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상대의 자신있는 태도에 놀랐을는지 여기에서 나태현군이 침착을 잃고 경솔한 수를 두고 만다. 백 134로 단수친 수가 흑 대마의 숨통을 터준 대박수가 되었다. 이 수로는 '참 <오규철 9단·본보 비독해설위원>



Advertisement for '더마플라스트 밴드' (DermaPlast Band) featuring a woman's face and product information.

A large table with four columns for language learning: '굿모닝 잉글리쉬', '오하오우 니혼고', '니하오 쯡구워', and '한자 이야기'. Each column contains a question and its answer in the respective language.